

중남미 PPP 진출전략

'23.10., KIND 기획조정실 혁신정책팀

I 지역 개요

□ 중남미

- (범위) 아메리카 대륙은 흔히 문화적 기준을 사용하여 영어로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2개 국가 외 모두)로 구분, 라틴 아메리카는 지리상 멕시코 리오그란데 강에서부터 아르헨티나 최남단까지 포함
- (명칭) 이 지역에는 카리브해의 영미권 국가도 속해있어 국제기구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LAC)'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중남미'라는 명칭으로 해당 지역을 통칭
- (권역) 중미, 남미, 카리브해 3개 권역으로 구분, 남미 권역에 인구·면적·경제규모 상 주요 6개국(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페루) 집중



구분	국가 (총 33개국)
중미 (8)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남미 (12)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 수리남, 아르헨티나 ,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 콜롬비아 , 파라과이, 페루
카리브해 (13)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 거점국가 학습 방법에 의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이해 (2020.5.,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II 일반현황

□ 주요 지표 (중미, 남미 / GDP의 경우 '22년 기준)

구분	수도	인구(만명)	면적(천km ²)	GDP(억달러)	1인당 GDP(달러)	
(참고) 대한민국	서울	5,155	104	17,342	33,592	
중미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1,809	109	913	4,880
	니카라과	마나과	704	130	157	2,375
	멕시코	멕시코시티	12,845	1,964	14,245	10,948
	벨리즈	벨모판	42	23	27	6,096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636	21	320	4,883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1,059	112	306	2,969
	코스타리카	산호세	521	51	685	13,090
	파나마	파나마시티	447	75	711	16,173

구분	수도	인구(만명)	면적(천km ²)	GDP(억달러)	1인당 GDP(달러)	
(참고) 대한민국	서울	5,155	104	17,342	33,592	
남미	가이아나	조지타운	81	215	148	18,745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2,884	912	821	3,052
	볼리비아	라파스	1,239	1,099	434	3,631
	브라질	브라질리아	21,642	8,516	18,947	8,857
	수리남	파라마리보	62	164	30	4,88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4,577	2,780	6,307	13,622
	에콰도르	키토	1,819	284	1,155	6,413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342	176	712	20,018
	칠레	산티아고	1,962	756	3,109	15,604
	콜롬비아	보고타	5,208	1,139	3,429	6,644
	파라과이	아순시온	686	407	419	5,615
	페루	리마	3,435	1,285	2,393	7,005

※ 출처: 2023 세계국가편람(2022.12., 한국수출입은행), 네이버 국가정보(2023.08.25. 조회)

□ 최근 이슈

- (제2차 핑크 타이드) 중남미 국가 내 좌파 세력 다수 집권
 - 중남미에서 '90년대 말 민주화 이후 좌파 정부가 연쇄적으로 탄생했던 것을 핑크 타이드(분홍 물결)라고 하며, 이후 부패 등을 이유로 무너졌던 좌파 정부들이 최근 다시 집권하며 2차 핑크타이드 도래
 - 중남미는 미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미·중 경쟁이 치열, 좌파 정부 확산이 중국에 미칠 우호적 영향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심 필요

- (니어쇼어링) 미국 정부는 미·중 갈등 심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고자 노력
 - 그 일환으로 인접 국가인 중남미 대상 니어쇼어링* 지원, 중남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심국가로 부상
 - * 니어쇼어링: 수요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
 - 미주개발은행은 니어쇼어링으로 인한 중남미의 단기·중기 수출 효과를 연간 780억불로 추정



<국가별 니어쇼어링 수혜효과>

※ 출처: IDB 기사(iadb.org/en/news/nearshoring-can-add-annual-78-bln-exports-latin-america-and-caribbean), '23.9.25. 접속

○ (디지털화) 팬데믹 이후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중남미의 광대역 보급률은 13.5%(OECD의 1/3 수준), 모바일 광대역 보급률은 73%(OECD 128%)로 디지털 연결성과 접근성이 낮은 편
- 이에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디지털 인프라 부재 문제의 심각성을 경험한 이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등 속도 가속화

※ 출처: PPP Americas 2023, Partnership with purpose (2023.6., IDB)

III 건설시장 규모 및 인프라 투자수요

□ 건설시장 규모 및 우리 기업 수주 실적

- 중남미 시장의 세계 건설시장 비중은 4% 내외이나, 우리나라에게는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이은 3대 해외건설시장(최근 10년간 수주액 기준)

【세계 건설시장 규모 및 중남미 시장 비중 전망】

(단위: 억불, %)

지역	2021	2022	2023	2024	2025
중남미 시장	5,153	6,069	6,567	6,497	6,826
전체 시장	129,442	134,696	141,019	150,509	161,142
중남미 시장 비중	4.0	4.5	4.7	4.3	4.2

※ 출처: 중남미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2022.12., 해외건설협회) / 2023년 세계건설시장규모 수정 전망(2023.5., 해외건설협회)

【최근 10년간('13~'22) 우리기업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위: 억불, %)

순위	구분	수주액		수주 건수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아시아	1,490	38.6%	3,896	62.0%
2	중동	1,468	38.1%	618	9.8%
3	중남미	265	6.9%	421	6.7%
	중미(멕시코, 파나마 등)	103	2.7%		
	남미(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등)	160	4.1%		
	카리브해(도미니카 등)	3	0.1%		
4	유럽	262	6.8%	559	8.9%
5	태평양, 북미	256	6.6%	308	4.9%
6	아프리카	115	3.0%	487	7.7%
	총계	3,856	100.0%	6,289	100.0%

※ 출처: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2023.08.25. 조회),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으로 총계와 불일치

□ 인프라 투자 수요

- 미주개발은행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은 인프라 수요 충족을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불의 투자 필요(수처리, 에너지, 운송 및 통신 등)
 -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수치로, 인프라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중남미 GDP의 3% 규모 투자 필요
 - 한편 최근 민간의 자금조달 참여율은 30% 수준으로, 참여 정도가 지속된다고 볼 때 2030년까지 약 6천 6백억불의 민간투자 필요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 총회에서 결의한 국제 의제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 17개 목표(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등)

※ 출처: PPP Americas 2023, Partnership with purpose (2023.6., IDB)

IV PPP 유망 분야

□ 재생에너지

- 중남미는 화석연료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한편,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은 적어 기후변화 책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 화석연료 보유국 다

- 콜롬비아(석탄, 석유, 천연가스), 에콰도르(석유), 볼리비아·페루(천연가스) 등

■ 에너지 소비구조

- 화석연료 69%, 재생에너지 31%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낮은 편
(화석연료 비중의 세계 평균은 81.1% 수준)

■ 이산화탄소 배출

-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7%를 배출하며, 1인당 탄소 배출량은 국제 감축 목표 기준에 이미 근접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

※ 출처: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201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이 높고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기후변화 위험도

- '98~'17년 20년간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0개국에 중남미 국가가 5개국 포함되어있을 정도로 기후변화 위험지수가 높은 편

■ 에너지 시장변화

- 미국,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아 화석연료를 수출해왔으나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수요 감소

※ 출처: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201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 도모, 지형 여건이 유리해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으며 국채발행 등 투자도 확대 중
 - 세계 삼림의 23%, 강우량의 29%, 생물종의 60~70%, 수자원의 30% 보유¹⁾
 - '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57.5%로 권역 기준 세계 1위(세계 평균 28.4%)²⁾
 -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중(그린본드 발행규모 '14년 2억불 → '21년 91억불), 아직 일부 국가에 한정된 것은 한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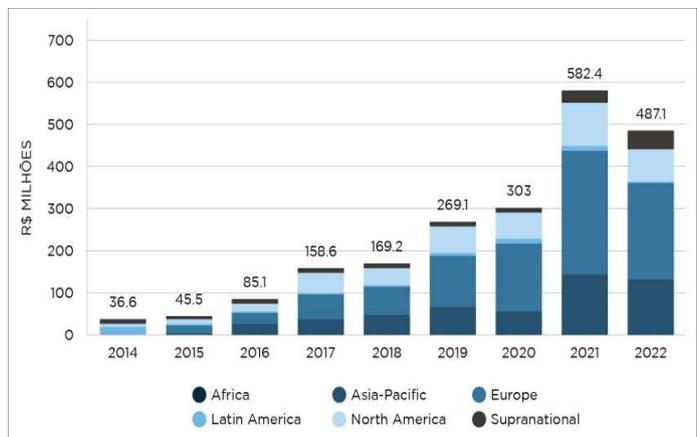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량(GWh)】⁴⁾

구분	멕시코('22)	브라질('21)	아르헨티나('20)	칠레('22)	콜롬비아('20)	페루('21)
수력	35,559	109,350	24,215	20,290	49,837	2,319
풍력	20,529	20,771	9,410	8,872	10	1,801
태양광	20,342	4,632	1,344	14,463	191	802
바이오	2,141	-	-	1,895	-	356
지열	4,413	-	-	465	-	-
원자력	-	1,990	10,662	-	-	-

* 브라질의 경우 발전량이 아닌 설비용량(단위: MW)

【그린본드 개요 및 연도별('14~'22) 발행 현황】⁵⁾

- 그린본드(녹색채권) 개요
 - 금리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 중 하나
 - 기후 및 환경 사업의 금융조달에 자금 활용
- 발행 규모
 - '07년 유럽투자은행(EIB) 최초 발행 이후 '21년까지 전세계 1조 5천억불 채권 발행
 - 신흥시장에서는 아직 새로운 상품, 중남미 발행액이 증가 중임에도('14년 2억불→'21년 91억불) 전체의 1.5% 수준으로 성장성 높



※ 출처: ¹⁾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201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²⁾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웹진 2023-2호 주제별보고서1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남미의 기회 요인, ³⁾⁵⁾PPP Americas 2023, Partnership with purpose (2023.6, IDB), ⁴⁾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국가별 신재생에너지/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보고서

□ 교통 및 운송

- 중남미는 미-중 경쟁과 그에 따른 니어쇼어링으로 공급망 재편 수혜 예상, 중남미가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뒷받침이 필수
 - 중남미의 도로망 및 교통 발전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며 정부 재정도 취약한 상황 →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수로 등 공급망 인프라 분야에서 PPP 형태의 사업 발주 다수 예상

- 특히, 도로, 공항 및 항만 관련 PPP 사업이 활발한 편
 - (도로) '98년 이후 중남미 12개국에서 294개의 PPP 프로젝트 추진
 - (공항) 중남미 내 총 168개의 공항이 PPP 방식으로 건설되었으며, '17년까지 전체 교통량의 70%를 처리
 - (항만) '18년 중남미 지역 항만 화물량 중 91%가 PPP 방식으로 건설된 항만을 통해 이동, 모든 항만이 PPP 방식인 국가도 多
 - 한편 철도 및 내륙 수로 분야는 비교적 발전 정도가 낮고 PPP 추진 사례가 적은 편이나, 화물운송 비용이 낮고 에너지효율이 높아 중남미 국가간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발전가능성 존재
- ※ 출처: PPP Americas 2023, Partnership with purpose (2023.6., IDB)

□ 디지털 인프라

-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은 중남미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에너지, 스마트시티, 교통 등 인프라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 프로젝트 진행 예상
 - (에너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및 우루과이가 스마트 그리드(에너지 효율 최적화 전력 네트워크 시스템) 분야 선도 중으로 성장 잠재력 高
 - (스마트시티 및 교통) 물관리, 폐기물처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도시 인프라 시설 스마트화 수요 증가로 관련 사업 성장 예상
- ※ 출처: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201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중남미 진출전략(2022, KOTRA)

□ 분야별 참고 사례

[재생에너지]	[교통 및 운송]	[디지털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명) 브라질 ■ (사업명) 피아우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 (총 사업비) 약 3천 5백만불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동북부 피아우이 지역 공공건물 에너지 공급 목적, 월 65만kWh 전기 생산 - 지속가능한 에너지 매트릭스 구현을 위해 공공자원의 23%를 절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명) 콜롬비아 ■ (사업명) 카르타헤나-바랑키야 화물 고속도로 건설 사업 ■ (총 사업비) 62억불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 연안 카르타헤나-바랑키야 지역 이동 효율성 개선 사업 - 74.58km 도로 건설, 8개 교차로 건설, 16개 교량 건설, 253km 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명) 브라질 ■ (사업명) 브라질 5G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총 사업비) 88억불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파수 관리 등 네트워크 구축 - 대상 사업지 : 3만명 이상 지자체 1,174개 및 3만명 미만 지자체 4,396개, 35,784km에 달하는 2,349개 고속도로 등

※ 출처: UNECE PPP database of case studies 2023(2023, UNECE), InfraPPP(infrappworld.com)

V

PPP 수주현황 및 진출 전략

□ 중남미 지역 투자개발형사업 수주현황

- 최근 5년간(2018~2022) 신규 수주 사업은 브라질 1건에 불과(2.5억불)
- 동일 기간 전체 투자개발사업 수주액은 77.8억불로 중남미 비중 3.2% 수준

국가명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억불)	계약일자
브라질	GS건설	오우로 뽀레또 市 상하수도 공급 서비스	오우로 뽀레또 市	2.48	2019.10.16.

※ 출처: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 (전략1) PPP 제도 및 PPP 추진 경험 점검을 통한 진출 전략국 선정

-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가 PPP 관련 법률을 보유, 제도적 환경은 양호한 편
- 다만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과 집행력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많아 실제 추진사례가 많은 국가 위주 진출 필요
- '8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PPP 모델을 최초 사용하였으며, 이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국가에서도 도입하여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어 상기 국가 중심으로 PPP 사업 참여 추진

【국가별 법률 및 규정 구비 현황(중미, 남미)】

구분	법률/규정 등 제도	
중미	과테말라	PPP Law in 2010 등
	니카라과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N. 935 등
	멕시코	Laws and Regulations for PPPs and Concessions 등
	벨리즈	Draft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olicy(2021) 등
	엘살바도르	Decreto No.379 del 2013 - Ley Especial de Asocio Publico Privados 등
	온두라스	Law for the Promotion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등
	코스타리카	No dedicated PPP Law but regulatory framework
남미	파나마	Ley 93 de 19 de septiembre de 2019, que creó el Régimen de Asociación Público-Privada (APP) 등
	가이아나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olicy Framework 등
	베네수엘라	Decreto N° 318 con Rango y Fuerza de Ley Orgánica sobr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 bajo el Régimen de Concesiones 등
	볼리비아	Supreme Decree 726 Concessions 등
	브라질	Law 11079 - bidding and contrac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thin the public administration 등
	수리남	No dedicated PPP Law
	아르헨티나	Law on Contrac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Ley 27328 등
	에콰도르	Ley Orgánica de Incentivos para Alianzas Público Privadas 등
	우루과이	DECRETOS REGLAMENTARIOS No 17/012 del 26 de enero de 2012, 280/012 del 24 de agosto de 2012, 251/015 del 14 de setiembre de 2015 등
	칠레	Ley 21044 Crea la Dirección General de Concesiones de Obras Públicas 등
	콜롬비아	Law 1508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등
	파라과이	The PPP Law, Ley N° 5.102/13 등
	페루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law through the Legislative Decree 1362 등

※ 출처: PPPLRC (ppp.worldbank.org, Legal Framework – Legislation and laws), 2023.09.27. 접속 및 조회

□ (전략2) 중남미 지역 MDB(다자개발은행) 활용 사업 참여

- 중남미 국가들이 PPP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은 민간자본을 동원하기 위함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큰 지역 특성상 MDB의 참여가 민간투자 유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MDB 활용 시 사업 안정성 확보에 도움
- 주요 MDB : CABEL(중미경제통합은행), CAF(중남미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 특히 IDB의 경우 그룹사 미주투자공사(IDB Invest)를 통해 PPP 지원 중으로, MDB와의 협력채널 구축 노력과 이를 통한 사업 참여 기회 발굴 필요

[IDB Invest의 PPP 지원 역할 사업 참여 사례]

PPP 지원 역할			
		- (중남미 국가 정부 대상) 수익성 있는 입찰 설계에 대한 자문 제공 등 - (민간 금융기관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혼합금융 지원	
사례	1	사업명/국가	중앙 철도 PPP 사업(Proyecto Ferrocarril Central PPP) / 우루과이
		세부내용	몬테비데오 지역 272km 철도 건설 사업에 선순위 대출 및 후순위 대출 제공
	2	사업명/국가	고속도로 및 안전경로 네트워크 사업(Préstamo Puente para el Programa PPP Red de Autopistas y Rutas Seguras) / 아르헨티나
		세부내용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멘도사, 산루이스, 산타페 지방 3,400km 구간 고속도로 사업 중 1단계 사업에 브릿지 파이낸싱 제공

※ 출처: IDB Invest(idbinvest.org/en/solutions/public-private-partnerships), 2023.9.25. 접속 및 조회

□ (전략3) 현지 및 글로벌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노력

- 중남미 지역은 언어적·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스페인 및 유럽계 기업 위주로 시장 참여자가 구성되어왔으며, 최근 중국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 중
- 우리 기업의 중남미 권역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현지 기업 및 시장 참여 경험이 있는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인 상황
- 기술력, 가격 등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및 현지 문화를 고려한 네트워킹 추진(중남미 지역 PPP 비즈니스 포럼 'PPP Americas^{*}'를 통한 발주국·시장 참여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사업정보 획득 등)

* PPP Americas: IDB 그룹이 2년마다 주최국과 협력 개최하는 포럼으로 정부, 기업 및 MDB 다수 참여
 ※ 출처: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랫폼시장 진출 확대방안(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략4) PPP 관련 기관 지원제도를 활용한 초기 사업 발굴

- 중남미 시장은 우리기업의 PPP 사업 참여가 활발한 아시아 지역과 달리 국내기업 활약 저조,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 성공사례 확보 필요
-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 검토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나 검토 결과 타당성 부족 시 매몰비용화로 민간에 부담 → KIND^{*}, 수은 등의 F/S 지원제도로 부담 경감 가능,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업 검토 및 사업화 추진

* KIND는 F/S 지원사업을 통해 코스타리카 철도사업, 칠레 도로 사업, 페루 스마트시티 사업 등의 타당성조사 지원

참고

중남미 지역 주요 MDB(다자개발은행)

명칭		설립	회원국 현황	주요내용
정식	약칭			
중미경제통합은행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1960	15개 회원국 (한국: 역외 회원국, 영구 이사국)	(역할) 중미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을 위한 투자 지원 목적으로 설립, 역외 자본 유치 및 역내 협력 증진에 필요한 금융 투입 기능 수행
				(주요업무) 차관, 무상공여, 지분투자, 기술지원
				(재무상태) '19년말 기준 총자산 약 114억불 보유 - 자산: 유동자산 39억 3천 5백만불, 대출채권 72억 3천 9백만불, 기타자산 2억 1천 8백만불 - 부채/자본: 채무 11억 6천만불, 기타부채 1억 9백만불, 채권 55억 1천 2백만불, 주식 34억 4천 3백만불
				(협력의의) 중미지역 개발사업 특화 기구이자 국제금융기관들과의 개발 협력 정책 파트너 역할도 수행 중, '19년 한국의 회원국 가입으로 CABEI 주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 증대 예상
중남미개발은행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CAF	1968	19개 회원국, 14개 금융기관	(역할) 안데스 6개국 발전 및 지역통합을 위해 설립 후 역내 회원국 확장, 지역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차관 제공 등을 통해 회원국 지원
				(주요업무) 차관, 무상공여, 지분투자, 기술지원
				(재무상태) '19년말 기준 총자산 420억불 보유 - 자산: 420억불 - 부채: 271억 4천 8백만불 (채권 76%, 정기예금 11%, 증권 7%, 대출·기타채무 6%)
				(협력의의) 인프라구축, 환경, 사회개발, 공공정책, 생산성증대 등 5대 중점 분야 관련 역내 개발에 공헌 중으로, 전체 예산의 약 50%를 중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 기관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1959	48개 회원국 (한국: 역외 회원국)	(역할) 중남미 지역 최대 지역개발금융기구로서 경제, 사회개발과 역내 자유무역 및 지역통합 달성을 위한 차관 및 기술협력 지원 제공
				(주요업무) 차관, 무상공여, 보증
				(자매기구) IDB 그룹 내 2개 자매기구 존재 - 미주투자공사(IDB Invest): IDB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로 민간분야 투자, 용자, 보증 등 지원 - IDB랩(IDB Lab): 벤처,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 대상 기술 및 투자지원
				(재무상태) '17년말 기준 자본금 총 1,770억불
				(협력의의) 세계 5대 국제개발금융기구* 중 하나로, 한국도 역외 회원국으로서 IDB 차관 조달시장 참여 중이나 중남미국 위주 수주로 협력강화 필요 * IDB 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 출처: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2020.12., 외교부) / 2020 세계 ECA·국제금융기구 편람(수출입은행)